

장서폐기 필요성과 저해요인

A study on necessity of weeding library collections and hindering factors

김진환, 하태준, 김용렬, 류범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유통본부 지식기반실

Kim Jin-Hwan, Ha Tae-Jun, Kim Yong-Yul,
You Beom-Jong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요약

도서관의 기본적인 목적은 지식의 생산·전달 및 사회에 대한 봉사이다. 도서관은 장서 및 정보봉사를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서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이용자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기 위해 장서폐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 도서관계에서는 장서 폐기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지만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각 도서관별 장서의 양에 따라 도서관의 순위를 매기는 정책 요인과 실무 요인, 행정 요인 등이 있다. 결국 장서폐기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쉽게 실천을 못하는 실정이다.

장서폐기는 부족한 서고 공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서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장서폐기에 대한 필요성과 그에 따르는 저해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현실적인 도서관 관리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964년 개관한 남산도서관은 해마다 2만여 권의 책이 새로 들어오지만 지금까지 폐기된 장서가 2만여 권 밖에 안 된다. 이로 인해 장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도서관의 벽에 금이 가는 등 안전문제가 나타나 위험하다는 판정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은 자체적인 소장 공간 적체현상과 자료보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에 자료보존관을 건립하였고 2009년에 디지털도서관을 완공하여 자료의 이동을 통하여 근본적인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정보화시대가 도래하여 폭발적인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서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Robison이 사서는 단순히 책보관자가 아니라 교육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듯이 도서관에서 올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선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서의 폐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장서폐기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르는 저해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장서폐기의 중요성에 대해 제고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장서폐기의 필요성

최근 신문보도에 따르면 대학 도서관들이 헌책들을 버리지 못하고 전전공공 하고 있다고 한다. 출간된 지

20년이 넘어 종이와 낡고 활자 및 디자인 등이 구식 이어서 대출해가는 학생이 거의 없는 책들이 서울시내 대학도서관 자료실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대학들은 도서관 평가에서 장서량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이들 도서를 폐기처분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A. Curley는 장서에서 자료의 제거는 그 장서의 효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G. Edward. Evans는 도서선택이란 역설적으로 장서의 폐기 또는 장서의 통제에 관한 사고의 일환이며, 지속적인 장서폐기 프로그램이 시행되지 않으면 도서관장서는 급속히 무용화 된다고 지적하였고 공간절약, 접근개선, 비용절감, 신간자료를 축적할 여유 공간의 확보를 제시하였다. 국내외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장서폐기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장서량 증가로 인하여 대두되는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도서관 내에서도 예산의 한계로 지속적으로 도서관 건물에 투자를 할 수 없으므로 도서관 증축이나 신축 등의 방법은 일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가공간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방법은 이용적, 보존적으로 소장할 가치가 없는 자료를 폐기하는 것이다.

둘째, 이용자서비스를 질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다. 이용자가 정말로 찾고 싶은 도서는 없고 사람들이 보지 않은 책들만 쌓여 가고 있으므로 장서폐기를 통해서 장서를 재구성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최신성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자료의 분실과 파·오손 정도를 파악하여 장서관리 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 도서관 운영이 개가제로 활성화됨에 따라 분실되거나 훼손·오손되는 정도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폐기작업을 통하여 분실 및 파·오손 자료를 식별해내고 제적 및 재 구입, 수리를 적시에 수행함으로써 자료의 이용에 장서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넷째, 디지털 형태로 생산되는 수집·보존 사업들의 프로젝트가 성행하고 있다. 이 말의 뜻은 인쇄본 자료를 디지털화 시켜 이용자에게 제공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의 OASIS, 호주의 PANDORA, 미국의 MINERVA, 일본의 WARP가 이미 디지털화 된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전자책과 전자 자료가 등장함에 따라서 서가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인쇄본자료에 대한 폐기를

고려해 볼 시점이다.

2. 장서폐기의 저해요인

첫째, 제도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장서 폐기기준 설정의 어려움으로 기피하는 경우다. 장서 폐기기준의 설정은 도서관의 자료 선정기준을 역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장서폐기와 폐기기준의 설정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폐기기준의 선정은 도서관의 목적, 소장 자료의 양과 성격, 수서정책의 목적, 장서의 성장률, 장서보관의 경제적 측면과 이용자의 요구 및 전체적인 행정계획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폐기기준의 설정이야말로 도서관이 해야 하는 핵심 업무이자 도서관 사서의 전문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사서의 핵심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시대적 요인으로 디지털화와 관련하여 장서폐기 당위성의 약화를 들 수 있다. 최근 도서관계에서는 장서의 증가로 인한 공간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도서관 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인 판권문제, 사서의 기술적인 문제, 인쇄매체 선호와 지속적인 인쇄매체의 요구로 자료에 대한 폐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정책적인 요인으로 장서 수에 대한 민감한 집착이 장서폐기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관광부 공공도서관 평가지표에서 알 수 있다.

표 1. 문화관광부 공공도서관 평가지표

평가	세부평가자료	배점
자료	장서구성 현황	50
	장서구성의 주제 다양성	40
	연간 신규 장서증가율	20
	명문화된 장서개발 지침 수립여부	30

이 표를 보면 장서구성 현황과 장서구성의 주제 다양성의 배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도서관의 장서구성을 도서관 평가의 1차적인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기에 각 도서관에서는 평가점수에 민감한 사항 일 수밖에

에 없는 실정이다.

넷째, 장서 폐기로 인하여 업무가 과중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장서 폐기 업무는 장서의 등록에서 서가의 배열까지 자료정리과정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질 경우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모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도서관계에서는 장서폐기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게 되며, 이용가치가 상실한 자료를 계속 보관함으로써 장서의 최신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Ⅲ. 결론

도서관 사서 대부분이 자료폐기의 필요성을 인정은 하지만 아직까지도 소장 책 수가 도서관의 우수성을 결정하고, 거대한 서고는 도서관의 권위와 역사를 대변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에 자료폐기를 더욱 더 어렵게 만든다. 도서관 활동은 일정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새로운 자료가 들어오는 만큼 낡은 자료를 빼내지 않으면 도서관의 포화상태를 넘어서 도서관의 생명자체가 위협해진다.

하지만 장서양의 증가로 무분별하게 폐기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변화하는 새로운 학문에 발맞춰 체계적인 장서폐기기준에 따라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서관은 장서폐기가 특별한 행사가 아닌 일상적인 업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1] 이병목, 서혜란. “도서관자료의 폐기정책”, 도협월보, 20:1(1979) : 8.
- [2] Curley, Artue & Broderick, 1085. Dorothy. Building Library Collection, 6th ed. Metuchen, N,I : Scarecrow Press.
- [3] G. Edward Evans, 1995. Developing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Collections. 3rd ed. Englewood, Libraries Unlimited.
- [4] 윤희윤, 장서관리론, 서울 : 태일사, 1999.
- [5] 마선희, 장서폐기의 기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 2000